■ 계속되는 종책토론, 여론수렴 현장

'불교공청' 은 지난 5일, 6일, 12일 세 차례에 걸쳐 종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종단 발전을 위한 핵심 의제를 말한다' 는 주제로 열린 12일 좌담회.

지난 12일 구례 지리산화엄사종합체육관에서 열린 3차연대3 종책토론회. 미얀사 주지 금강스님(왼쪽)이 기조발제를 통해 종단 운영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종무기관 사회활동 강화 행정은 교구본사로 이양해야"

불교공장, 세 차례 종책좌담회

오는 10월10일 34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종책모임 불교공장(공동대표 지즉, 성문, 성직스님)이 세 차례에 걸쳐 종책좌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불교 과제와 전망' 을 주제로 열린 이번 좌담회에는 종단 입법, 행정을 담당하는 스님과 종무원, 불교사회단체 관계자 및 언론종사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러 집행부 평가 및 차기 총무원 집행부의 과제, 종단 발전을 위한 의제 등이 다뤄졌다. 불교의 사회봉사 강화나 교구특성에 도입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도출했다. 특히 정화불사나 종단개혁까지 내부 문제에 천착했던 시선을 외부로 돌려 불교의 사회와 즉 지타구원에 힘써야 한다는데 대다수가 공감했다. 한 집행부 들이 몸담았나니 4대만 회계를 살펴고 감찰하을. 원융자재로 등 사원분쟁에 많은 관심을 갖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유정길 평화재단 기획위원은 "국제 분주기도 시사쟁점을지라도 2000년 불교계는 남북, 평화문제에 이슈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회운동은 측적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며 "종단 내 노동위원회나 화쟁위원회가 연속성이 없다면 그간 축적된 자산은 냉각되거나 낡아 가버린다"며 계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종단 체계를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사회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제나 환경, 인권 등은 따로 독립해고, 포교원도 신도권리위주의 포교업무가 아니라 노동, 농촌 등 사회갈등 어루만지는 포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무원의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구력이내를 통해 중앙으로 집중된 행정과 재정을 교구본사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재현 불장사 종무실장은 "승려노후보지제도나 지역포교 등은 교구에 힘이 실려야 더 효과적이고, 교구 내 직영사찰 등을 지원해 재정이 안정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며 "종단에 교구행정과 도입위원회와 산하 실무팀을 둬서, 교구력임세가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어 수행종풍진작, 종단 자성과 쇄신 방향, 불교성장등의 견비, 포교력신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어현경 기자 amato@buddgo.com

"불교 위상 되찾기 위해 종단운영 획기적 변화 필요"

3자연대, 종책토론회 개최

연속성이 없다면 그간 축적된 자산은 냉각되거나 낡아 가버린다"며 계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종단 체계를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사회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제나 환경, 인권 등은 따로 독립해고, 포교원도 신도권리위주의 포교업무가 아니라 노동, 농촌 등 사회갈등 어루만지는 포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무원의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구력이내를 통해 중앙으로 집중된 행정과 재정을 교구본사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재현 불장사 종무실장은 "승려노후보지제도나 지역포교 등은 교구에 힘이 실려야 더 효과적이고, 교구 내 직영사찰 등을 지원해 재정이 안정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며 "종단에 교구행정과 도입위원회와 산하 실무팀을 둬서, 교구력임세가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어 수행종풍진작, 종단 자성과 쇄신 방향, 불교성장등의 견비, 포교력신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어현경 기자 amato@buddgo.com

■ 자승스님, 제34대 총무원장 출마의 변

"종단중흥·발전 기반 확고히 세우겠다"

34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선언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뜻은 사람이 세고, 처음 시작한 사람이 그 길을 책임지게 마련이다" 는 옛말을 들어 출마의 변을 밝혔다.

"지난 4년간 33대 집행부가 세 내려온 것처럼 내 역시 이며, 앞으로 후대에 물려줄 자

한국불교 무한가능성 확인
교구가 지역 수행포교 총괄
'자치공동체' 되도록 지원

종단 사찰재정투명화 실현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비구니 참종권 확대 '과제'

랜스러운 미래 자산" 을 토대로 종단 중흥과 불교 발전의 발판을 확고하게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님은 "33대 총무원장으로 재임한 지난 4년은 여러저 책임의 일단을 수행하는 시간이었다" 고 돌아봤다. △1962년 조계종단 출범 이래 최대불사가 될 총본산 성역화 사업 △300년 만의 개혁이라 평가받는 승가교육체도 혁신과 교육기반 확립 △사찰 재정 및 운영의 투명성을 통한 여법한 종단 운영 △교육의 진흥과 인재양성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전법활동 △대승불교의 사대목 구현 △불교문화의 대중화와 한국불교의 세계화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교구스님은 수행포교 확대에 대해 "이론중인 지성과 쇄신이 아닌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보는 뼈저린 반성과 함께 구습을 바르고 훈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원래대립점을 통해 실추된 수행풍토를 되찾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더불어 중앙종무기관의 구조 개편을 통한 효율성 강조, 인사와 재정 운영의 투명화와 안정화, 불교NGO와 불교언론의 활성화 등이 시급해다고 제시했다.

이어 지정도문제인 종단중흥위원회 조직을 공조한 뒤 단계적인 사찰 재정 공개가 필요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자승 토론시간에서는 총무원 기능의 약화와 더불어 포교원 기능 강화, 환경수호 종책 강화, 수도권 교구제 개편, 문화체육관광 신설, 정문계들 수립, 비구 중심의 종단 토도 탈피 등 다채로운 종책 의견이 제시됐다.

구례=박인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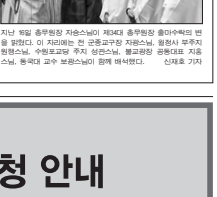
"정책대결로 사회 모범 선거를"

대불청·대불련 청년 불자들
'불교발전 견인' 호소문 발표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청년 불자들이 "종헌종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사회에 모범이 되는 선거가 펼쳐졌면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는 지난 12일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국격 훈교계회의 조직을 이끌어나갈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교계 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선거가 여럽한 불교계인 모습으로 보여지나 사회에 모범이 되어 축제 분위기로 진행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불청은 특히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 를 비롯한 관련 기구들이 한쪽에 치우침 없이 공명정대한 것대로 잘못된 관행을 감시해 사 회에 존경받는 불교를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 며 "특보도 내나 스님들은 종단에 잘보여 앞서 불교 구석구석을 아우르는 정책과 비전으로 불교 발전을 견인해 주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끝단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지민)도 호소문을 내고 "사부대중의 화합으로 여럽하게 대표를 모시는 모습을 통해 불교와 조계종단의 위상을 드높이고 불교의 화쟁정신을 사회에 널리 펴드리에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대법과 비판, 폭로에 초점 맞추지 선거운동, 뒤집운동을 멈추고 우리 불교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한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 정책운동을 시작해 주시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송다영 기자 song@buddhagate.com



지난 16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제34대 총무원장 출마수락의 변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 군종교구장 자광스님, 월정사 부주지 월정스님, 수원포교원 주지 성큰스님, 불교광장 공동대표 지홍스님, 동국대 교수 보은스님이 함께 배석했다. 신재호 기자

공고

수행기관

삼장원 및 염불원 지정 신청 안내

삼장원 및 염불원이란?

- **종법근거**
  삼장원 • 염불원법(제정 2013.3.20. 공포 2013.4.1.) 및 동법 시행령(제정 2013.4.4)
- **삼장원**
  승랍 7년 이상의 본종 승려가 본종의 사찰에서 하안거 동안거 기간 동안 경 · 율 · 론 삼장과 선어록을 연찬하여 참선 수행을 병행하는 수행기관
- **염불원**
  승랍 7년 이상의 본종 승려가 본종의 사찰에서 하안거 동안거 기간 동안 염불 및 참법수행과 정토사상을 연찬하여 참선수행을 병행하는 수행기관

- **신청대상 사찰** : 본종에 등록된 사찰로 삼장원 또는 염불원 운영이 가능한 사찰
- **신청서 양식**
  가. 신청서는 대한불교조계종(www.buddhism.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삼장원 지정신청서 · 서식, 염불원 지정신청서 · 서식2)
  나. 신청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가. 명칭, 설립목적, 소재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
  나. 정규
  다. 운영위원 명단
  라. 예산운용계획서
  마. 시설 · 설비 사항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 **혜택**
  가. 삼장원 또는 염불원에서 정진한 승려대중은 당해 연도에 발행되는 전국 사찰 잡계획에 등록됨.
  나. 승가고시법 제30조 3항에 따라 3급승가고시 응시자격의 인가심만으로 인정함.
  다. 승가고시법 제6조 4항에 따라 2급승가고시 응시에 있어 수행이력으로 인정함.
- **신청서 제출**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교육국
  02-2011-1809

불기2557(2013)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